

# 광주 4개 대학서 AI·미래차 인재 3550명 육성

### 교육부 '첨단산업 부트캠프'사업 선정 전남대·조선대·광주대·조선이공대 등 시, 대학별 국비 71억·시비 3억원 투입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조선이공대 등 광주지역 4개 대학에서 5년간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첨단산업 인재 3550명을 양성한다. 광주시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취업과 연계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올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가 최종 선정돼 국

비 356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트캠프는 실무 중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젝트 기반 전문 교육 과정을 지칭한다. 광주대·전남대·조선대·조선이공대 등 4개교가 AI 부트캠프에 선정됐으며, 전남대는 미래차 부트캠프도 추진한다. 실무형 AI·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AI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된 전남대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 KT 등 56개 기업이

참여한다. 조선대는 에이아이캡스, NHN아카데미 등 48개 기업, 광주대는 으뜸정보기술, 대상정보기술 등 70개 기업과 함께하며 조선이공대는 퀴트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등 30개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한 AX(인공지능전환) 실전, 스마트제조, AI팩토리 등 AI 대전환 대응을 위한 기업과 협업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운영을 계획하며, 4개 대학 총 2900여명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AI 부트캠프는 다음 달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각 대학별로 국비 71억 2500만원, 시비 3억원(대학별 민자 별도)이 투입된다. 미래차 부트캠프 사업에는 전남대가 주

관기관으로 기자자동차, GGM, LG이노텍, DH오트웨어 등 지역기업 32개사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광주를 미래차 핵심 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 현장 중심 전문인력 650명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차 부트캠프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총 127억6900만원(국비 71억2500만원, 시비 3억원, 민자 53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AI와 미래차 등 이반에 선정된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수요 기반의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신속한 인재 공급 추진을 목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지역 전문 인력 배출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술개발·인재양성·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AI·미래차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미래차 선도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두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앞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이 AI·미래차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신용보증재단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다음 달 3일부터 모집한다.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전남신보, 내달 3일부터 모집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다음달 3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과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생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기초 역량을 다지는 '전남 라이브스쿨'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오픈마켓 구축 및 보완,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 스피치 등 판로 확대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지원한다.

'전남 라이브스쿨'교육은 순천시 신대지구에 위치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다음달 26일, 27일,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씩 3일간 진행된다.

이어지는 실전 방송 단계인 '라이브커머스 온에어'는 '전남 라이브스쿨'을 수료한 업체 중 20개 업체를 별도 선정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전용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 전문 쇼호스트 등을 지원받아 완성도 높은 방송을 진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 앱(APP)사와의 사전 프로모션 및 할인 쿠폰, 배송비 등 판촉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도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jnsinbo.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용 기자

### "미래차 전환 2000억 투자하면 생산 1조5000억"

#### 광주연구원, 친환경차산업 생태계 방안 제시

광주 지역경제 핵심인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6일 광주연구원이 자체 구축한 사회계정행렬(SA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차전지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200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경우 생산수입 1조 4542억원, 부가가치 5962억원, 취업유발 8016명으로 내연기관 분야 투자보다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나, 광주는 여전히 자동차·기계 등 내연기관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지역 내 전기차 제조업체와 이차전지 산업 기반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친환경차 전환 지연이 가져올 지역경제 충격을 우려하면서도 "현재 자동차산업의 높은 의존도는 오히려 미래차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전략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 제조업 육성을 넘어 전주기 통합전략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패키지 지원, 완성차·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 정비산업의 친환경차 대응 역량 강화와 이차전지 생애주기 관리 체계 마련, 인력·기술·산업 정책의 통합추진 등을 내놓으며 제조·부품·정비·인력을 아우르는 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연구진은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단,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의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으며,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차 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광주는 이미 완성차 생산 기반과 AI·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갖춘 잠재력 있는 도시"라며 "친환경차 전환은 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제도 약 전략이다.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산업으로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지방보달청은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식회사 이에스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활동을 진행했다.

### 광주조달청, 혁신제품 생산 주식회사 이에스 방문

#### "기업 소통 강화·공공시장 진입 실질적 지원"

광주지방보달청(청장 김우현)은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식회사 이에스(대표 김은성)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유망 혁신기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회사 이에스의 혁신제품 '기립·승강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갖는 GIS기반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은 기립승강계 메

커니즘을 적용, 지상 유지보수를 통해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관제로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스마트 장애 진단으로 대응 시간을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우현 광주보달청장은 "앞으로도 혁신제품 지정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과감한 기술 투자로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이 공공편의를 통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세무사회, 전북도와 '고향사랑기부' 협약

#### "지역소멸위기 극복·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광주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이광영·봉삼중 부회장, 전북분회

이종호 분회장과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7000여명의 세무사이고 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봉급 생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밀착 홍보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광주세무사회도 이번 협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 홍보와 참여에 나서기로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전문성 없는 사장 후보 추천 규탄"

#### 경찰 출신 인사 최종 후보 포함 논란...강력투쟁 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해 '낙한 인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차권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낙한 인사' 시도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며 "해운·항만·물류분야를 비롯한 관련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추고 여수광양항

의 당면 현안 과제와 항만공사 10~20년 이 상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여수광양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양수도권 육성을 국정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며 "경찰 출신 비전문가 낙한 인사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조합은 "사장 공모를 시작한

후 최근 8명의 면접 과정에서 7명은 모두 해양·항만 관련 분야 유경력자 또는 전문가였으나 1명은 모 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해양·항만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라며 "이런 인사가 항만공사 사장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면접장에서 경찰 출신 지원자는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할 만큼 관련 지식이 전무했는데 최종 후보로(5배수)도 포함돼 해수부장관에게 추천됐다"고 꼬집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 광주·전남 기업체감경기 제조업↑ 비제조업↓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는 두 달 연속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달보다 상황이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6년 2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5로 전월보다 6.8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 실사 지수(BSI) 중

업황·생산·자금 사정 등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5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78.3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1월(83.7)과 2월 두 달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9.5로 전월에 비해 2.7p 하락했다.

이번 달 기준 전국 평균은 제조업 97.1·비제조업 92.2이다. 매출과 재고, 신규 수주를 종합한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지난달보다 4p 상승했다.

이 중 생산지수(84)와 신규 수주지수(75)는 전월보다 각각 6p, 1p 상승했으며 매출지수(70)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농촌관광 서포터즈 2기' 운영

#### 전남농협, 어린이 10가족 선정

농협전남분부는 전남팍스테이마을협의회와 함께 농업·농촌체험을 희망하는 어린이 10가족을 선정해 본격적인 농촌관광 서포터즈 활동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관광 서포터즈는 도시지역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서포터즈 참여가족은 전남 22개 팍스테이 마을에서 체험·숙박을 하면서 바지락 캐기, 매실 수확 체험, 모내기 체험 등 어린이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농촌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체험활동 경험을 사진과 함께 블로그와 SNS에 게재해 농촌 체험에 관심 있는 도시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이번 농촌관광 서포터즈는 전남 농촌관광의 매력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